

광주 결혼식 비용 평균 1574만원 든다

소비자원 조사...전국 평균 대비 500만원 낮아
스·드·메는 343만원...광주가 전국서 가장 비싸
식대 6만2000원 “계약 전 참가격 누리집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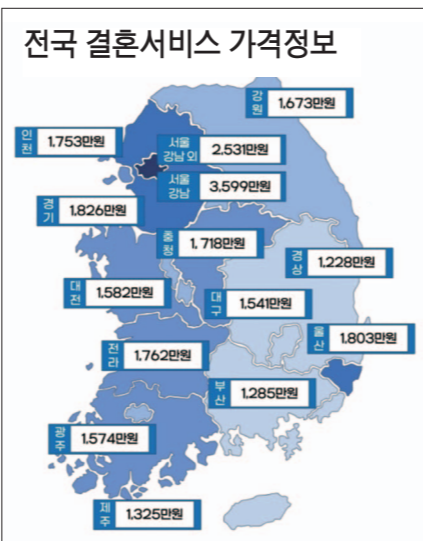
광주의 결혼식 비용이 1500만원대로 전국 평균보다 500만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은 전국 1위로 평균보다 50만원 높은 가격대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1일 발표한 ‘2025년 12월 결혼서비스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결혼서비스 전체 비용은 평균 157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2091

만원보다 약 500만원 낮은 수준이다.

전남을 포함한 전라권 평균은 1762만원으로 전국 14개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조금 낮지만, 광주보다는 높은 가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의 결혼 비용은 지난해 10월부터 4.4% 하락했다. 같은 기간 타 광역시인 대구의 결혼 비용은 지난해 대비 1.1% 하락했으며, 대전은 4.4%, 인천은 3.9% 감소했다. 부산의 경우 2.4%, 울산은 1.7%가



상승해 광주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하객 1인당 식대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서울 강남은 1인당 9만원대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광주는 6만2000원으로, 전국 평균(5만8000원)보다 약 4000원 높은 가격이다. 이는 서울 강남과 서울 강남 외 지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축의금이 5만원대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객 1인당 식대가 상승함에 따라 예비부부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하객들 사이에서도 축의금 액수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스드메’로 불리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비용은 343만원으로 광주가 가장 높았다. 이는 강남(324만원)보다 높은 가격대로, 전국 평균이 293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약 50만원 비싼 가격이다.

광주가 ‘스드메’ 비용은 가장 높지만 전체 가격이 낮은 편으로 조사된 배경에는 지난해 광주 지역 예식장들이 예약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 인원 하향이나 대관료 인하 등 할인 정책을 시행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12월 선택 옵션 가격은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으나, 일부 고가 품목을 중심으로 변동이 나타났다.

결혼식장 업체의 ‘생화 꽃장식’의 경우 지난 10월 250만원에서 262만원으로 12만원(4.8%) 상승한 반면, ‘혼주 헤어·메이크업’은 18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16.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가격변동과 더불어, 대다수 업체가 공통으로 취급하는 옵션이 사실상 ‘필수’가 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의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서비스 비용은 지역별·업체별로 가격 차이가 매우 크고 선택 옵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부부들은 계약 전에 ‘참가격’ 누리집 내 예상 견적 조회 기능을 통해 세부 품목별 가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4개 지역 40개 도시의 결혼식장 351곳과 결혼준비대행업체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2월 결혼서비스 가격조사 결과는 가격 정보 종합 포털사이트 ‘참가격’ 누리집(www.price.go.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이마트, 고래잇 페스타 주말 특가 행사 이마트는 오는 4일까지 대형 할인행사인 ‘2월 고래잇 페스타’를 진행한다. 특히 주말을 맞아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고래잇 페스타 주말 특가’ 행사도 펼쳐진다.

사학연금, 재정 안정·AI 혁신 투트랙 ‘속도’

송하중 이사장 신년 업무보고...50년 재정 로드맵 등 수립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이 재정 안정성과 고령 제감 복지를 축으로 한 중장기 혁신 전략을 본격화한다.

1일 사학연금에 따르면 올해 신년 업무 보고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 AI 기반 서비스 혁신, 퇴직 이후 삶을 아우르는 복지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임기 3년 차를 맞은 송하중 이사장은 제도 개선과 자산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연금의 장기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선 제도 측면에서는 제6차 재정제계산을 지난해 12월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장기 재정 안정화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폐교 증가에 따른 연금 조기지급 제도 보완 등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부담금, 급여 환수, 생활자금 대여 전 분

야에 대한 제남 관리 강화를 통해 평균 제남률을 0.7% 이하로 낮추는 등 기금 손실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자금융운 부문에서는 최근 3년(2023~2025년) 연속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하며 연평균 14.67%의 성과를 달성했다. 사학연금은 이를 토대로 올해에도 10%대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AI와 ALM(자산부채종합관리)을 결합한 최적 자산배분 전략을 도출하고 AI 기반 조기경보 지표 도입에 시장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SG 투자 비중도 5.7%까지 확대해 책임 투자 기조를 지속한다.

고객 제감 복지 확대도 올해 주요 과제다. 사학연금은 퇴직 교직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지원금’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비자발적 퇴직 이후 구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독거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AI 안심 케어콜’을 본격 운영하고, 전 점점에 디지털 청구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도 시중은행과의 협약 대출 고도화, 행복나눔대여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기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 혜택을 강화한다. AI 전환(AI)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연금 관리 전 과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송 이사장은 “올해는 사학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구직지원금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과 AI 혁신을 통해 교직원들이 파부로 느끼는 복지 서비스를 구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연금기관으로서 국민과 가입자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진 기자

기업 투자 애로 짚는다...광주상의, 과제발굴 착수

공장 신·증설 규제·인허가 등 수렴 제도개선 연결

광주지역 기업들의 투자 현장 애로를 체계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투자애로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장 신·증설을 비롯해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인허가 지연, 경영 현장의 제도적 불합리 등을 폭넓게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상의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

서 제감도가 높은 과제를 선별, 지자체와 정부 관계 부처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단순 민원 수렴을 넘어,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 중심의 제안 과제 발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광주상의는 지역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규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해에는 총 48건의 정책과제를 건의해 이 가운데 18건이 수용 또는 일부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

선 효과를 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0일까지 진행된다. 기업들은 광주상의가 제공하는 서식을 작성해 회신하거나 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지역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제도상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며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조사 참여 기업 가운데 응답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책 제안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사본부(062-350-5862)로 문의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sdv0918@gwangnam.co.kr

“회복 넘어 성장...경쟁력 키우는 공단 조성”

인태연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임 이사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5대 이사장에 인태연(사진) 전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이 취임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대전본부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태연 이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인태연 이사장은 전국유통상인연합

회 공동회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며 현장 조직을 이끌어온 대표적인 상인 출신 인사다.

2018년 신설된 대통령비서실 자영업비서관으로 발탁돼 4년간 재직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총괄·조정했다.

인 이사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 상당 부분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인 이사장은 향후 공단 운영 방향으로 회복 중심 지원에서 성장 중심 정책으로

의 전환,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 창출, 데이터·기술 기반 맞춤형 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단기적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경로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6년 광남일보 제14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새로운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l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충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위어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공저자